

인 사 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의 개막식을 빛내 주신 모철민 주불한국대사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프랑스 문화원 박재범 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스어 통역)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2011년에 이어 다시 프랑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불교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 개막식은 이번 프랑스 방문 중 첫 번째로 열리는 공식 행사입니다. (프랑스어 통역)

한국의 불교는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이나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유산들은 대부분 오랜 역사의 불교 전통과 문화 속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불교는 곧 한국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통역)

한국의 산은 불교 수행공동체인 사찰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는 생명의 중심이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체험하고 감상하면서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산사입니다. (프랑스어 통역)

한국의 산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하고 사찰 음식을 맛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 곳 문화원에서 진행되는 체험 전시는 여러분들에게 ‘한국불교로의 여행’,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프랑스어 통역)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문화 교류가 더욱 폭 넓게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어 통역)

불기2560년 10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